〔연구논문〕

EISSN 2234-0793
PISSN 1225-1151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Vol. 39, No. 5 (2015) p.695~702
http://dx.doi.org/10.5850/JKSCT.2015.39.5.695

시판 드레스셔츠의 치수 구분 적합성

한은주 · 권수애† · 최종명 · 송재민 · 임보연
충북대학교 패션디자인정보학과

The Suitability of the Size Classification of Dress Shirts on the Market

Eun Joo Han · Soo Ae Kweon† · Jong Myoung Choi · Jae Min Song · Bo Youn Lim
Dept. of Fashion Design Inform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March 4, 2015; Revised May 6, 2015; Accepted June 15, 2015

Abstract

This study provides basic data that are helpful to prepare a sizing system for dress shirts that improves the wearer's size fitness. The 16 different parts of the dress shirts were measured for 24 pieces of dress shirts with three kinds of size (95, 100 and 105) among the eight different brands on the market. The measurement sizes of the dress shirts analyzed the accuracy of the size information, size classification by size designation, and differences of size by brand.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1. The size information of dress shirts differed from customer demand. 2. The size increments between size designations differed from each other even though measurement sizes of the dress shirts increased as the size designation increase. 3. Measurement sizes of the dress shirts were different between brands even for dress shirts of the same size designation. It is necessary that manufacturers secure an accurate and standardized sizing system and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for the measurement sizes of dress shirts on an online shopping mall.

Key words: Dress shirts, Size classification, Suitability; 드레스셔츠, 치수 구분, 적합성

I. 서 론

드레스셔츠는 성인 남성의 정장 차림에 반드시 필요한 셔츠류로써 함께 착용한 신사복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신체에 잘 맞아야 한다. Lim and Sohn(2000)에 의하면 드레스셔츠는 남자 정장 수트 밑에 입는 밴드가 달린 칼라와 단추가 달린 앞단으로 처리되어 넥타이를 곁들이는 정통 정장 스타일의 셔츠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화이트 드레스셔츠는 청결과 지적인 행동력을 상징하며, 최근의 라이프스타일 및 패션의식의 변화에 따라 색상과 디자인 및 소재가 다양해지고 있다(Kim & Choi, 2006).

전통적인 드레스셔츠의 소매는 활동성을 고려하여 진동둘레는 밋밋하여 직선에 가깝고 소매통은 넉넉하며, 커프스에 주름을 잡은 형태인데 비해 피트형 실루엣은 허리선에 피트하고 진동둘레도 곡선으로 하고 소매통도 줄인 형태를 보인다(Koo, 2006). 이러한 피트 스타일은 2006년부터 나타난 슬림 핏 트렌드의 가속화(Kim & Jang, 2012)로 수트, 드레스셔츠 뿐 아니라 캐주얼 셔츠도 슬림 핏이 유행하고 있다(Oh, 2012). 대부분의 드레스셔츠 브랜드에서 기존의 드레스셔츠와 '슬림'한 스타일임을 밝힌 슬림 핏 드레스셔츠를 구분하여 판매하고 있다. Kim and Jang(2012)은 일반 드레스셔츠와 슬림 핏 드레스셔츠는 목둘레와 총길이가 동일하고, 가슴둘레 4~7cm, 허리둘레 4~8cm, 어깨너비 1~3cm의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따라서 슬림 핏 스타일의 드레스셔츠는 일반 셔츠에 비해 몸에 더 붙는 실루엣을 가지게 되므로 기존의 전통적인 드레스셔츠에 비해 착용자에게 잘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Kim and Cho(2005)는 사무직 남성들이 드레스셔츠를 평가할 때 치수가 가장 중요하며, 색상, 편안한 착용

†Corresponding author
E-mail: sooae@chungbuk.ac.kr

ⓒ 2015,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All rights reserved.

감, 디자인, 다른 옷과의 조화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Jang(2008)에 의하면 드레스셔츠의 다양한 부위의 치수 중에서는 목둘레, 가슴둘레, 소매길이 순으로 중요다고 밝히고 있다. Korea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KATS], 2014)의 한국산업규격 KS K 0050 성인 남성복의 치수에 의하면 드레스셔츠 사이즈는 목둘레와 화장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캐주얼 셔츠의 경우는 가슴둘레의 치수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위인 목둘레와 소매길이가 포함된 화장이 드레스셔츠의 기본 치수 항목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Jang(2008)은 대부분의 시판 드레스셔츠는 목둘레, 화장이 아닌 가슴둘레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드레스셔츠를 착용할 때 불편함을 느끼는 부위는 목둘레가 가장 많았고 소매길이, 가슴둘레 부위와 셔츠길이, 허리둘레 부위 순이라고 밝히고 있다. Kim and Jang(2012)은 슬림 핏 셔츠의 착의실태를 조사한 결과 어깨부위의 여유량이 부족해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전체적인 핏에 대한 불만도 많다고 하였다.

슬림 핏의 드레스셔츠는 맞음새가 매우 중요한 의복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치수 정보와 업체가 제공하는 치수 정보에는 격차가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치수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소비자들이 알 수 있는 치수 정보가 제한되는 경우이지만 백화점이나 대리점과 같은 오프라인 구매 방식은 소비자가 직접 입어보고 구입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부족한 치수 정보를 시착이라는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접 확인하고 입어보고 구입할 수 없는 온라인 구매 방식의 경우는 이러한 치수 정보 부족을 극복할 방법을 별도로 강구해야 한다.

Korea Consumer Agency([KCA], 2006)의 오픈마켓의류의 상품정보에 대한 신뢰성 확인 시험에서 온라인 상품정보와 실제 의류 치수가 –8~+9cm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Lee(2011)는 인터넷 패션소비자의 치수 관련 위험지각과 관련한 연구에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치수 정보는 정확하지 않다'는 질문을 하였다. 인터넷 패션소비자는 이 질문에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4.9%,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4.6%로 79.5%가 치수에 대해 보통이나 신뢰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수정보가 더 정확하다면 인터넷 구매를 더 자주 할 것이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3.0%로 나타나 소비자들이 치수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요구가 매우 크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맞음새와 치수 정보의 정확성이 중요한 드레스셔츠이지만, 치수에 대한 연구는 주로 치수 체계와 선호 여유량에 대한 연구(Jang, 2008)나 대량맞춤 생산 체계를 위한 패턴 연구(Jang & Jang, 2008)와 슬림 핏 드레스셔츠의 패턴 연구(Kim & Jang, 2012), 원형 설계 및 그레이딩룰에 관한 연구(Hwang & Lee, 2003) 등 여유량과 패턴을 개선시키기 위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소비자 선호도와 실태조사(Kim & Jang, 2012; Kim & Cho, 2005; Kim & Choi, 2006; Koo, 2006; Lim & Sohn, 2010) 등을 통해 소비자의 드레스셔츠 구매 시 치수 선택정보와 선호 소재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드레스셔츠의 치수에 대한 연구는 Kim and Jang(2012)이 패턴 치수를 중심으로 일반 셔츠와 슬림 핏 셔츠의 치수 차이를 밝히고 있는 것이 전부로 드레스셔츠의 실제 치수에 대한 분석 및 적합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시중에 유통 중인 드레스셔츠의 실제 제품 치수를 기준으로, 드레스셔츠의 호칭별 치수 구분 여부와 동일 호칭 내의 드레스셔츠 브랜드 간 차이를 분석하고,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드레스셔츠 치수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착용자의 치수 적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장용 드레스셔츠의 치수 체계 마련에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시험대상 및 분석

I) 시험대상

시험대상 브랜드는 Apparelnews corporation(2012)에서 백화점에 매장이 많은 상위 6개 드레스셔츠 브랜드와 가두 남성복 리딩 브랜드로 부상하고 있는 셔츠타이토털 브랜드 2개 등 총 8개 브랜드를 선정하였다. <Table 1>에서 시험대상 8종은 비만 등 특수한 체형이 아닌 일반 체형을 가진 30세부터 35세 연령의 남성이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이다.

시험대상 제품은 8개 브랜드에서 공통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디자인을 선정하였으며, 슬림 핏 스타일로서 목둘레가 원 버튼인 긴팔 셔츠를 구입하였다. 또 호칭별 치수의 구분 적합성을 보기 위해 8개 브랜드에서 95, 100, 105 등 총 3단계의 셔츠를 각각 1벌씩 구입하여 총

Table 1. The features of dress shirts

No.	Material	Structure	Density (3cm)		Thickness (mm)
			Warp	Weft	
1	Cotton 60% / Polyester 40%	Plain	130.8	101.8	0.026
2	Cotton 65% / Polyester 35%	Plain	130.5	113.6	0.024
3	Cotton 60% / Polyester 40%	Twill	135.3	85.0	0.024
4	Cotton 65% / Polyester 35%	Plain	136.4	82.7	0.020
5	Cotton 85% / Polyester 15%	Plain	148.0	91.3	0.022
6	Cotton 69% / Polyester 31%	Plain	109.5	69.4	0.023
7	Cotton 60% / Polyester 40%	Twill	156.2	105.6	0.020
8	Cotton 60% / Polyester 40%	Plain	158.4	99.4	0.019

24벌의 드레스셔츠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하였다.

시험대상의 소재는 <Table 1>과 같이 면과 폴리에스터 혼방이며, 조직은 평직이 6종이고 능직이 2종이었으며, 밀도는 3cm당 경사방향 130.5~158.4올, 위사 69.4~105.6올, 두께는 0.019~0.026mm로 나타났다. 밀도와 두께는 각 제품별로 5회 측정한 평균값을 나타낸 것이다.

2) 치수 측정 및 분석방법

상품정보 치수는 인터넷 상에서 제공되는 드레스셔츠의 실제 치수 정보를 활용하여 SPSS 21.0의 기술통계를 사용해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소매길이, 소매통, 가슴둘레, 허리둘레, 옷길이, 화장, 목둘레, 깃너비 등 16개 부위는 <Fig. 1>과 같으며, 동일한 측정도구와 측정방법으로 의류전문가 3인이 각 제품별로 3회씩 직접 측정하여 평균값을 산출하고 각 부위의 호칭별 치수 차이에 대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Duncan test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고찰

1. 치수 정보의 신뢰성

시험대상 8종 중 치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7종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4종은 목둘레와 화장, 가슴둘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1종은 가슴둘레와 목둘레, 2종은 가슴둘레만을 제공하고 있어, 드레스셔츠의 기본 치수 항목인 목둘레와 화장에 대한 업체의 정보제공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에서 제공한 치수 정보와 실제 의류 치수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2>와 같으며, 95는 실제 가슴둘레 치수가 제공한 치수 정보 값에 비해 –5.5~+5cm의 차이가 있었으며, 목둘레는 –0.7~0.0cm, 소매길이는 –0.7~+3.8cm, 허리둘레는 –14.3~+0.3cm의 차이가 나타났다. 100 호칭의 경우는 가슴둘레는 –6.1~+2.2cm, 목둘레는 –0.6~+0.1cm, 화장은 –0.3~+4.0cm, 허리둘레는 –11.2~+0.9cm로 차이가 있었다. 105 호칭은 가슴둘레는 –4.9~0.0cm, 목둘레는 –0.5~+0.1cm, 소매길이는 –0.1~+4.3cm, 허리둘레는 –12.0~+0.3cm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오픈마켓에서의 상품정보 신뢰성에 대해 시험한 KCA(2006)의 상품정보와 실제 제품 간 치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한 내용과도 일치한다.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점퍼의 실제 치수는 상품정보에 비해 총길이가 9cm가 길었고, 블라우스는 가슴둘레가 8cm 작았으며, 반바지는 허리둘레가 6cm가 더 커서 온라인 상품정보와 실제 의류 치수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드레스셔츠의 상품정보와 실제 셔츠 간의 치수 차이가 호칭별 차이인 5~6cm보다 더 큰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판매자가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표시와 실제 치수 간의 오차 범위는 ±1~±2cm이다. 95, 100, 105의 3개의 호칭별 상품정보와 실제 치수 간 차이 6개 항목을 분석한 결과 총 18개 정보 중 표시 치수에 비해 실제 치수가 2cm 이상 크거나 작은 항목은 모두 11개 정보로 정확하지 않은 항목이 61%에 달했다. 드레스셔츠의 치수 정보 신뢰성이 높지 않은 것은 Lee(2011)의 인터넷 패션소비자가 치수 정보가 보통이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2. 호칭별 치수 차이

1) 호칭별 치수 구분

소비자들은 제품에 부여된 호칭으로 치수의 크고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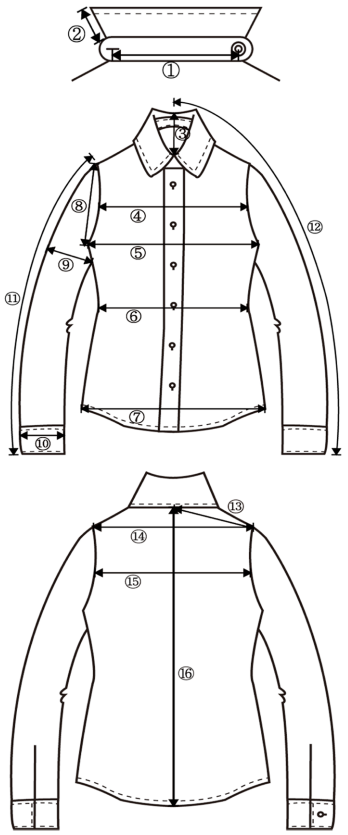

Fig. 1. Dimensional measurements of dress shirts.

Table 2. The difference of information with dress shirts of 95, 100, 105 (Unit: cm)

Dimension entry \ Appellation	95	100	105
Length of neck	–0.7 - +0.0	–0.6 - +0.1	–0.5 - +0.1
Length of sleeve	–0.7 - +3.8	0.0 - +1.1	–1.0 - –0.5
Length from CB neck point to sleeve hem (Hwa-Jang)	–0.5 - +1.4	–0.3 - +4.0	–0.1 - +4.3
Length of shirt	–1.0 - +0.2	–0.9 - +0.2	–0.9 - +0.6
Width between shoulders	–2.6 - +0.9	–0.7 - +0.2	–2.5 - +0.3
Circumstance of chest	–5.5 - +5.0	–6.1 - +2.2	–4.9 - +0.0
Circumstance of waist	–14.3 - +0.3	–11.2 - +0.9	–12.0 - +0.3

Difference=dress shirts size–information size

음을 구분하게 된다. 호칭별로 치수가 구분되지 않으면 제품의 호칭 부여는 의미가 없어진다. 시험대상 드레스 셔츠의 치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호칭별로 깃너비를 제외한 15곳의 측정치 모두 세 가지 호칭 간에 유의미하게 치수 차이는 있는 것(p<.001)으로 나타났으며, Duncan 사후검정결과 호칭별로 점차 치수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3). 깃너비는 신체 치수의 증가에 따라서 큰 변화가 없는 부위임을 감안한다면 시중

Table 3. The difference of size by 95, 100, 105 (Unit: cm, N=72)

Dimension entry \ Appellation	95	100	105	*F*
Depth of neck	9.8A	10.2B	10.7C	52.739***
Length of sleeve	61.7A	62.8B	63.8C	235.314***
Width of breast	38.8A	40.5B	42.1C	120.092***
Length of shirt	74.3A	75.5B	77.0C	133.185***
From back of neck to shoulder	17.6A	18.3B	19.0C	80.193***
Length from CB neck point to sleeve hem (Hwa-Jang)	84.3A	86.4B	88.4C	194.756***
Width between armpits	42.9A	44.6B	46.2C	240.449***
Length of neck	38.5A	40.4B	42.0C	1418.719***
Width of collar	7.0	7.0	7.0	.522
Width between shoulders	44.5A	46.2B	47.8C	709.625***
Circumstance of cuffs	21.2A	21.9B	22.9C	141.963***
Circumstance of sleeve	39.5A	41.2B	42.6C	46.075***
Circumstance of chest	103.4A	108.2B	112.4C	531.696***
Circumstance of waist	92.8A	98.0B	102.4C	255.790***
Circumstance of A.H.	48.3A	50.3B	51.8C	81.821***
Circumstance of bottom	101.4A	106.4B	111.0C	517.878***

***p<.001
Alphabet characters are shown as a group with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Duncan test results p=.05 with a different character that represents the size of average (A<B<C).

에서 유통되고 있는 드레스셔츠는 호칭 숫자가 클수록 제품의 실제 크기도 커져서 호칭에 따른 치수 구분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호칭별 세부 치수 차이

드레스셔츠 호칭의 기준은 가슴둘레로 호칭 간 가슴둘레 차이는 5cm이다. 그러나 실제 드레스셔츠 100과 95 사이의 가슴둘레 차이는 4.8cm이고, 105와 100 사이의 가슴둘레 차이는 4.2cm이다(Table 4). Jang(2008)의 업체 간 치수 체계 비교결과에서 100과 95의 차이가 5.8cm, 105와 100 간 5.4cm인 연구결과와 반대의 증가분을 보이고 있다. 이는 드레스셔츠 업체의 치수 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Jang(2008)의 전반적인 치수 체계의 표준화가 되지 않았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시험대상 허리둘레는 100과 95는 5.2cm 증가하고, 105와 100은 4.4cm 증가하여 100을 기준으로 95와의 차이보다는 105와의 차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칭 간 치수 증가분은 연령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조금씩 다르게 주어질 수 있으나,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치수 간 구분이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것이 가장 바

Table 4. The size of 100-95 and 105-100 (Unit: cm)

Dimension entry \ Appellation	100-95	105-100
Depth of neck	0.4	0.5
Length of sleeve	1.1	1.0
Width of breast	1.7	1.6
Length of shirt	1.2	1.5
From back of neck to shoulder	0.7	0.7
Length from CB neck point to sleeve hem (Hwa-Jang)	2.1	2.0
Width between armpits	1.7	1.6
Length of neck	1.9	1.6
Width of collar	0.0	0.0
Width between shoulders	1.7	1.6
Circumstance of cuffs	0.7	1.0
Circumstance of sleeve	1.7	1.4
Circumstance of chest	4.8	4.2
Circumstance of waist	5.2	4.4
Circumstance of A.H	2.0	1.5
Circumstance of bottom	5.0	4.6

람직하다. 호칭 증가하는데 따라 실제 치수 증가가 제각각 다르면 소비자는 자신의 신체 치수를 가지고 드레스셔츠의 치수를 예측하고 구매하기가 어려워진다.

3. 브랜드별 치수 차이

1) 동일 호칭의 드레스셔츠 브랜드 간 차이

호칭이란 드레스셔츠의 치수를 착용자의 신체 가슴둘레 치수로 간단하게 부르는 별칭으로 호칭이 같은 드레스셔츠라면 실제 셔츠의 치수도 브랜드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동일 호칭의 드레스셔츠가 브랜드에 따라 치수가 동일한지 분석한 결과 95는 소매통과 화장을 제외한 14개 측정부위에서 브랜드에 따라 유의미하게 치수가 차이가 있는 것(p<.001)으로 나타났으며, 100과 105는 16개 측정부위 모두에서 브랜드 간에 유의미한 치수 차이가 있는 것(p<.001)으로 나타났다(Table 5).

몸에 밀착되는 정도가 유사한 비슷한 슬림 핏 디자인의 드레스셔츠임에도 불구하고, 동일 호칭의 드레스셔츠가 브랜드별로 치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같은 호칭의 셔츠라 하더라도 브랜드에 따라 크기가 다를 수 있음을 나타낸다. 브랜드마다 동일한 호칭의 셔츠 치수가 다른 것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선택을 방해하며, 치수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호칭이 같다면 브랜드가 다르더라도 동일인이 입었을 때 유사한 맞음새를 갖는 치수의 셔츠가 소비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2) 호칭별 브랜드 간 치수 차이의 범위

호칭이 같더라도 브랜드에 따라 치수가 다르게 나타났으므로, 동일 호칭 안에서 브랜드에 따른 치수 차이의 정도를 조사하였다. 호칭이 95인 드레스셔츠에서는 허리둘레 부위가 브랜드 간 치수 차이가 가장 컸으며 8.3cm의 차이가 나타났다. 아랫단 둘레는 5.3cm, 앞품은 4.3cm, 뒤품은 4.1cm, 가슴둘레는 3.7cm, 소매통은 2.7cm, 어깨너비는 1.5cm, 목둘레는 1.4cm, 셔츠길이는 2.2cm, 화장은 2.5cm의 차이가 있었다. 길이방향보다는 너비 및 둘레방향에 브랜드에 따른 치수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이는 다른 의류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Shin and Suh(2011)의 여고생 브랜드 교복 제품 치수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에서도 호칭 85의 블라우스가 브랜드에 따라 가슴둘레 2.0cm, 허리둘레 4.4cm, 소매길이 2.1cm 등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스타일이

Table 5. Size difference by brand

Dimension entry \ Appellation	95 F (N=24)	100 F (N=24)	105 F (N=24)
Depth of neck	415.105***	341.206***	207.754***
Length of sleeve	43.671***	149.479***	119.002***
Width of breast	701.728***	419.318***	7.014***
Length of shirt	87.061***	126.294***	395.671***
From back of neck to shoulder	71.715***	194.843***	72.035***
Length from CB neck point to sleeve hem (Hwa-Jang)	2.077	47.327***	50.976***
Width between armpits	184.789***	54.094***	33.599***
Length of neck	67.307***	39.953***	78.073***
Width of collar	171.746***	87.552***	172.404***
Width between shoulders	86.313***	103.871***	76.253***
Circumstance of cuffs	43.336***	87.106***	147.145***
Circumstance of sleeve	1.395	97.536***	314.760***
Circumstance of chest	25.471***	66.207***	53.073***
Circumstance of waist	682.700***	401.035***	209.227***
Circumstance of A.H	25.789***	32.216***	31.416***
Circumstance of bottom	69.630***	104.740***	83.460***

***p<.001

Table 6. Difference of Max. and Mim. by 95, 100, 105
(Unit: cm)

Dimension entry \ Appellation	95	100	105
Depth of neck	2.0	1.8	1.0
Length of sleeve	1.4	2.0	2.1
Width of breast	4.3	3.3	3.3
Length of shirt	2.2	2.3	4.3
From back of neck to shoulder	1.4	2.6	2.1
Length from CB neck point to sleeve hem (Hwa-Jang)	2.5	2.3	3.0
Width between armpits	4.1	2.8	2.1
Length of neck	1.4	0.9	1.1
Width of collar	0.9	0.8	1.0
Width between shoulders	1.5	1.4	1.7
Circumstance of cuffs	1.7	1.8	2.7
Circumstance of sleeve	2.7	4.7	5.4
Circumstance of chest	3.7	4.3	4.9
Circumstance of waist	8.3	8.9	7.8
Circumstance of A.H	4.0	3.9	5.5
Circumstance of bottom	5.3	5.4	5.4

다른 블라우스를 포함한 차이를 조사한 결과로서 스타일이 유사한 슬림 핏 드레스셔츠의 치수 차이에 비해 작은 차이를 보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드레스셔츠의 측정결과 호칭 간 차이가 4~6cm임을 감안한다면 허리둘레는 호칭 간 차이보다 동일 호칭 내에서 브랜드 간 치수 차이가 더 크게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잘 피트되어야 하는 부위인 목둘레도 호칭 간 차이인 1.6~1.9cm와 동일 호칭 내 브랜드 간 차이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장의 경우도 동일 호칭 내 브랜드 간 차이가 호칭 간 차이인 약 2cm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호칭별로 브랜드에 따른 치수 차이가 존재하며, 동일 호칭 내의 브랜드에 따른 차이가 호칭 간의 치수 차이를 넘어서고 있다는 결과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치수 차이 결과는 Jang(2008)과 Kim and Jang (2012)이 소비자가 불편함을 많이 느낀다고 설명한 목둘레, 소매길이, 가슴둘레와 셔츠길이, 허리둘레 부위, 어깨부위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항상 선택하는 호칭으로 드레스셔츠를 구입하더라도, 다른 브랜드의 셔츠를 구입하는 경우는 소비자가 입고 있던 기존의 셔츠와 실제 치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치수의 차이가 소비자의 치수 불만으로 이어지는 요인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치수 정보가 가슴둘레를 위주로 제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요구와 차이가 있었으며, 온라인에서 제공하고 있는 치수 정보를 실제 치수와 비교한 결과, 드레스셔츠를 구입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치수인 목둘레와 가슴둘레 그리고 화장(소매길이 포함)에서 실제 치수와 제공되는 치수 정보의 값 사이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중에 유통 중인 드레스셔츠는 호칭이 증가하면, 실제 제품의 치수도 증가하는 경향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호칭 간 세부적인 치수 증가분은 각각 달랐다. 실제 드레스셔츠의 가슴둘레는 100이 95에 비해 4.8cm 증가하고, 105가 100에 비해 4.2cm 증가하고 허리둘레는 100과 95는 5.2cm 증가하고, 105와 100은 4.4cm로 100을 기준으로 95와의 실제 치수 차이가 105와의 실제 치수 차이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동일 호칭인 드레스셔츠라 하더라도 브랜드별로 제품 치수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브랜드 간 치수 차이는 호칭의 평균값 차이보다 커서 동일인이 드레스셔츠를 구입할 때 브랜드마다 다른 호칭의 드레스셔츠를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체에 꼭 맞게 입어야 하는 드레스셔츠는 치수 적합성이 다른 의류에 비해 더욱 중요하다. 특히 호칭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브랜드마다 치수 차이가 있다는 점은 소비자가 자신에게 맞는 의류를 선택함에 있어 불편함을 주게 되므로 제조회사가 정확하고 공통적인 치수 체계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며,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터넷을 통한 의류 구매에 있어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실제 의류 치수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치수 선택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30~35세의 남성이 입을 수 있는 드레스셔츠 브랜드의 실제 치수를 측정한 결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중에 유통 중인 드레스셔츠의 실제 치수 체계에 대한 폭넓은 기초 자료 마련을 위해서는 다른 연령대를 타깃으로 하는 브랜드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Apparelnews corporation. (2012). *2012/2013 Korea fashion brand annual*. Seoul: Author.

Hwang, Y. M., & Lee, J. R. (2003). A study on the pattern and grading rule for dress shir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7*(1), 48–59.

Jang, S. E. (2008). A study on sizing system and preferable ease in a men's dress shirt for virtual mass customization syste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2*(1), 99–109.

Jang, S. E., & Jang, J. H. (2008). A study on a men's dress shirt pattern by somatotype for mass customized syste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2*(2), 294–306.

Kim, D. H., & Jang, J. A. (2012). The actual wearing conditions and preferences for domestic men's slim-fit dress shir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Clothing Industry*, *14*(6), 983–991.

Kim, K. H., & Cho, K. S. (2005). Clothing shopping orientations and purchasing practices for dress shirts of male office worker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4*(4), 683–692.

Kim, K. H., & Choi, J. M. (2006). The wearing practices and subjective fabrics preferences for spring and fall dress shirts of male office workers.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14*(2), 299–309.

Koo, I. S. (2006). A study on the shirt style preference and the shirt purchase attitude. *Journal of Fashion Business, 10*(2), 40–59.

Korea Consumer Agency. (2006, November). 오픈마켓의류의 상품정보 신뢰성 확인시험 [Reliability test of openmarket clothing information]. *Korea Consumer Agency.* Retrieved December 30, 2014, from http://www.kca.go.kr/brd/m_46/view.do?seq=70&srchFr=&srchTo=&srchWord=&srchTp=0&itm_seq_1=2&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item=10&srchword2=&srchPubDtFr=2006&srchPubDtTo=2006&page=1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2014). KS K 0050 Sizing systems for male adult's garments. *Korean Standards & Certifications*. Retrieved January 30, 2015, from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getStandardSearchView.do

Lee, J. Y. (2011). A study on the perceived size related risk and clothing behaviors according to perceived body characteristics and satisfaction with body characteristics-Focus on internet fashion consume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5*(5), 575–586.

Lim, H. W., & Sohn, H. S. (2000). A research on the consumer's actual condition for men's dress shirt I. *Journal of Fashion Business*, *4*(4), 135–151.

Oh, G. E. (2012, February 16). 올 봄에는 슬림핏 아이템을 입자! [Let's wear slim fit items this spring!]. *bntNews*. Retrieved August 30, 2014, from http://bntnews.hankyung.com/apps/news?popup=0&nid=02&c1=02&c2=02&c3=00&nkey=201202152335333&mode=sub_view

Shin, K. H., & Suh, C. Y. (2011). A survey on the brand school uniforms for high school girl's and comparative analysis on their size system of brand uniform.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9*(10), 49–56.